

REUTERS KOREAN WEEKLY NEWSLETTER

- [국내 주요 주간 일정](#)
- [해외 주요 주간 일정](#)
-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 ◇ (초점)-中, 곧 기준을 인하할 것 - 애널리스트들
- ◇ (분석)-美 증시 추가 상승 가능성 시사하는 정크본드
- ◇ (초점)-한국 경상수지 흑자 행진 7 년만에 멈출 가능성..상품수지가 관건
- ◇ (초점)-한은, 새 지표금리 선정 공론화..CD 금리 대체 가능할까

발행: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발행인: 유춘식 choonsik.yoo@thomsonreuters.com

뉴스레터 관련: reuters.korea@thomsonreuters.com

PICTURE OF THE WEEK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한 줄타기 전문가가 체코공화국 프라하에 있는 에마우스 수도원에 설치된 시설에서 공연하고 있다. (로이터/데이비드 처니 기자)

최근 주요 금융시장 동향

(4월5일 종가 기준)

원화 %	최종	주간(%)	YTD(%)	2018(%)	달러 대비 %	최종	주간(%)	YTD(%)	2018(%)
달러 대비	1,136.6	-0.1%	-1.8%	-4.1%	유로	1.1214	0.0%	-2.2%	-4.4%
100엔 대비	1,017.3	0.7%	-0.1%	-6.9%	엔	111.73	-0.8%	-1.9%	2.8%
유로 대비	1,274.7	0.0%	0.2%	0.2%	위안	6.7093	0.5%	2.4%	-5.3%
위안 대비	169.16	0.0%	-4.4%	1.3%	해외주식	최종	주간(%)	YTD(%)	2018(%)
한국주식	최종	주간(%)	YTD(%)	2018(%)	다우존스	26,424.99	1.9%	13.3%	-5.6%
코스피	2,209.61	3.2%	8.3%	-17.3%	나스닥	7,938.692	2.7%	19.6%	-3.9%
코스닥	751.71	3.1%	11.3%	-15.4%	S&P500	2,892.74	2.1%	15.4%	-6.2%
국내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8(bp)	MSCI APxJP	539.62	2.0%	13.1%	-16.2%
국고채 3Y	1.735%	4.5bp	-8.2bp	-31.8bp	미국시장금리	최종(%)	주간(bp)	YTD(bp)	2018(bp)
국고채 5Y	1.777%	6.9bp	-10.7bp	-45.9bp	미국채 2Y	2.343%	7.7bp	-15.5bp	60.7bp
국고채 10Y	1.893%	6.0bp	-5.5bp	-52.1bp	미국채 10Y	2.499%	9.2bp	-19.2bp	28.0bp
국제상품가격	최종	주간(%)	YTD(%)	2018(%)	CDS프리미엄	최종(bp)	주간(bp)	YTD(bp)	2018(bp)
유가(WTI)	63.08	4.9%	38.9%	-24.8%	한국 5Y	32.64	-0.66	-5.43	-13.74
금(현물)	1,291.30	0.0%	0.7%	-1.5%	일본 5Y	19.21	-0.29	-2.58	-3.34
TR상품지수	2,375.68	0.7%	0.2%	0.0%	중국 5Y	41.67	-2.52	-24.80	16.96

(달러/원 서울 거래 기준, 기타 환율 로이터 호가 기준) (c) 로이터 한글뉴스 서비스

국내 주요 주간 일정

<4월 8일(월)>

- 기재부, 대외경제장관회의(14:00)

<9일(화)>

- 한은, 조사통계월보 "산업별 노동생산성 변동요인 분석" 발간(12:00)

<10일(수)>

- 통계청, 3월 고용동향(08:00)
-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4월호 발간(10:00)
- 한은, 3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12:00)
- 한은, 2018년 중 자금순환(잠정)(12:00)

<11일(목)>

- 한은, 2월 중 통화 및 유동성·3월 금융시장 동향(12:00)

<12일(금)>

- 한은, 3월 수출입물가지수(06:00)
- 기재부, 4월 최근경제동향(10:00)

해외 주요 주간 일정

<4월 8일(월)>

- 일본, 2월 경상수지(08:50)
- 유로존, 4월 섀프스 지수(17:30)
- 미국, 3월 고용추이(23:00)
- 미국, 2월 공장주문(23:00)
- 태국 휴장

<9일(화)>

- 미국, 3월 NFIB 기업낙관지수 (19:00)
- IMF, 세계경제전망 발표(22:00)
- 필리핀 휴장

<10일(수)>

- 일본, 3월 은행대출(08:50)
- 일본, 3월 기업상품가격지수(08:50)
- 일본, 2월 기계류주문(08:50)
- 미국, 주간 모기지마켓지수(20:00),
-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20:45)
-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 기자회견(21:30)
- 미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21:30)
- 중국, 총통화(M2) 공급 증가율(~17일)
- 중국, 위안화 신규대출(~17일)
- 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 3월 19~20일 회의록 발간

<11일(목)>

- 미국, 3월 연방예산(03:00)
- 중국, 3월 생산자물가지수(PPI)(10:30)
- 중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10:30)
- 미국, 3월 생산자물가지수(PPI)(21:30)

<12일(금)>

- 춘계 세계은행/국제통화기금(IMF) 총회
- 유로존, 2월 산업생산(18:00)
- 미국, 3월 수출입물가(21:30),
- 미국, 4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23:00)
- 중국, 3월 수출입(시간 미정), 3월 외국인직접투자(FDI)(~19일)

국내 금융시장 주간 전망

<외환시장>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등락폭은 다소 커질 가능성이 있지만, 박스권을 확실하게 벗어나지는 못할 듯하다.
- 예상 환율 범위는 1125 원-1140 원이다.
- 미국의 3월 고용지표가 예상을 뛰어넘은 호조세를 보이면서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두려움은 한층 줄었다.
- 이런 가운데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의사록,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경기 방향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좀 더 이어질 전망이다.
- 한-미 정상회담이 11일 워싱턴에서 열려 이후 북핵 비핵화 일정에 관심이 다시 쏠릴 것으로 보인다.
- 아울러 수급상 매번 단단한 달러 매수세가 확인되는 만큼 이에 따른 시장의 경계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주식 배당 역송금 수요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로이터 계산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11일 LG 화학 1901억원, 12일 신한금융지주 5102억원의 외국인 배당 지급이 예정돼 있다.

<채권시장>

- 이번 주 채권시장은 대내외 주식시장의 흐름에 연동하며 제한적 변동성을 보일 전망이다. 대내외 증시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주 채권 금리가 반등세를 보였다.
- 당장 미국 연방준비제도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 신호를 시장에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다 보니 채권 롱 포지셔너들의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 미국 주가 상승률과 자신의 재선 성공률을 등치시켜 보고 있는 듯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가 부양 행보는 채권투자자들에게 양날의 검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연준에 금리 인하와 양적완화를 동시에 요구했는데 주가 상승세를 내년까지 끌고 가려는 복안으로 보인다. 내년 경기 침체를 선반영하고 있는 채권투자자들로선 롱으로도 숏으로도 반응하기 어려운 복잡한 상황이다.

- 국내경제의 상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선불리 포지션을 구축하기 쉽지 않다.
- 다음주 한국은행의 경제전망 발표를 지켜본 후에 다시 한 번 방향성을 고민하는 딜러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10일에는 3월 고용동향이 발표된다. 앞서 2월 취업자 증가폭은 26만 3000명을 기록해 13개월 만에 최대폭을 기록한 바 있다.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취업자 수를 늘리는 데 크게 기여했던 것을 감안할 때 3월 고용동향이 상당히 중요한 가능자가 될 전망이다.
- 12일에는 기획재정부가 '4월 최근 경제동향'을 발표한다. 기재부는 지난달 그린북에서 올해 생산, 투자, 소비 등 주요 지표들이 개선되고 있다며 긍정적인 경기판단을 내린 바 있다.

주간 로이터 한글서비스 톱기사

(초점)-中, 곧 기준을 인하할 것 - 애널리스트들

상하이 (로이터) - 중국인민은행이 금융시스템 유동성을 개선해 경제를 지지하기 위해 곧 기준율을 다시 인하할 것이라고 애널리스트들이 전망했다.

중국 은행시스템 유동성은 기업들이 1분기 세금을 납부하는 4월에 현금 수요가 늘면서 통상적으로 타이트해진다.

중국 전문가들은 경기 부양책이 강력해지기 시작했다는 초기 신호가 보이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신용 검색 리스크를 줄이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올해 중국 증시의 급격한 랠리를 이끈 주된 요인이기도 하다.

시장 참가자들은 세금 납부, 지방정부 채권 발행, 중기대출프로그램(MLF) 만기 등으로 이달 1조위안(1487억 7000만달러) 이상의 유동성이 흡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중국인민은행이 펀딩 갭을 메우기 위해 곧 기준율을 인하할 것이라는 추측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금요일에는 중국 소셜미디어 위챗에 신화통신 기사의 일부로 보이는 기준율 인하 기사가 퍼지자

도 했다. 인민은행은 즉각 이같은 내용을 부인했으며, 거짓 정보 유포에 대해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 인하 요구 계속돼

시장은 인민은행의 루머 부인에 대체로 익숙하지만 이번에는 놀랄만큼 빠른 대응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시장 참가자들은 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기준율 인하가 임박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리스 팡 **ING**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인민은행 반응은 그들이 시장 추측이나 움직임에 좀더 민감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기준율 인하 시점은 은행간 금리 움직임에 중요하다"며 "따라서 인민은행이 빨리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레이몬드 영 **ANZ** 이코노미스트는 "인민은행이 이달 중순쯤 기준율을 다시 인하할 것"이라면서 "유동성 여건을 볼 때 기준율 인하는 여전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관영 경제정보신문은 2일 성송청 전 인민은행 관리가 기준율 추가 인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성송청은 "인민은행이 기준율 인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1분기 경제지표를 먼저 검토할 것이며 지표가 경제가 이미 안정됐거나 곧 안정될 것임을 시사할 경우 기준율 인하 필요성은 그리 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3월 주요 경제지표는 이달 중순쯤, 1분기 GDP는 4월 17일 발표될 예정이다.

(분석)-美 증시 추가 상승 가능성 시사하는 정크본드

뉴욕 (로이터) -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 경신에는 실패했지만 분기 기준 거의 10년래 최고 성적으로 1분기를 마감했다.

이런 가운데 정크 본드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증시 이상의 좋은 성적을 냈다. 두 자산 간의 오랜 상관관계를 고려할 때 이는 주가가 곧 기록적

인 수준으로 돌아올 것이며 10년 가까이 지속된 강세 시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크리슈나 메마니 오픈하이머 펀드 수석 투자담당자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강세 시장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2019년에도, 2020년에도 끝나지 않을 것이며 몇 년 더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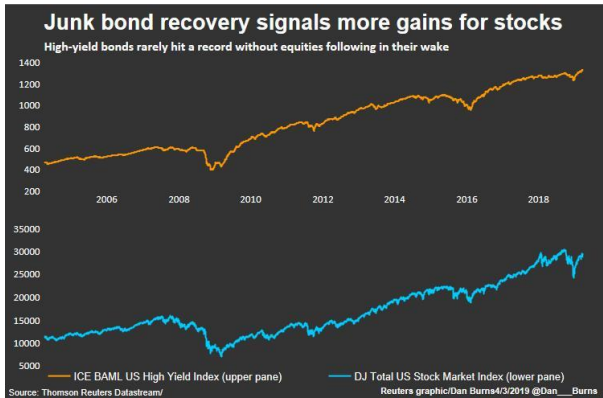
채권시장에서 주식과 가장 가까운 관계인 정크 본드는 신용 등급이 비교적 낮은 회사들이 발행하는 고수익 채권이다. 정크 본드는 작년 말 부진한 성적으로 한 해를 마친 뒤 올해 초반 다시 회복했다. **S&P500** 지수는 올해 들어 15% 상승했으며, **ICE** 뱅크오브아메리카 메릴린치 고수익 채권 지수는 7.6% 올랐다.

이러한 경기 회복의 가장 분명한 요인은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고 대차대조표 축소를 중단할 것이라는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스탠스 변화이다.

정크 본드와 주식은 같이 움직이지만 정크 본드는 종종 주요 전환점에서 주식에 앞서 움직여왔다.

예를 들어 10년 전 고수익 채권은 **S&P 500** 지수와 다우존스 지수가 바닥을 찾기 전보다도 두 달 이상 전에 금융위기에서 빠져나오기 시작했다. 이보다 최근인 2015~2016년에는 증시와 정크 본드 모두가 겪었던 대규모 조정에서 정크 본드는 주가가 회복되기 몇 주 전 기록적인 수준을 다시 회복했다.

현재 정크본드 지수는 지난 2월 초부터 신고점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작년 12월 저점에서 22% 오른 **S&P 500** 지수는 작년 가을 기록한 고점에 비해서는 아직 2% 가량 낮은 수준이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 또한 고점에 비하면 10% 가량 낮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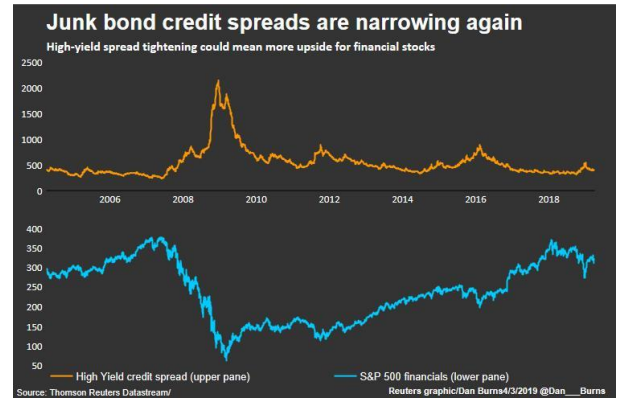
◆ 설레발은 아닐까?

정크본드와 주식 시장에서의 상승세는 연준이 3년간의 긴축 사이클을 중단하는 등 몇 년래 가장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미국 국채 3개월물과 10년물 간의 수익률 곡선은 한때 역전되기도 했다. 이는 경기 침체를 신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들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 이익 전망 또한 악화되고 있다. 레피니티브 자료에 따르면 S&P500 기업들의 기업 이익은 올해 1분기 2016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할 수 있으며, 2019년 전체 이익 증가율은 감세로 지지받은 2018년의 절반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

그러한 맥락에서 일부 투자자들은 금융 상황과 경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증시 상승을 지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레일 탐쿠오글루 JO 함브로 자산 매니지먼트 그룹 수석 펀드매니저는 "혼재된 경제 지표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과 투자자들이 이를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계속되는 낙관론

여전히 주식시장은 강세를 보이고 있고 투자자들이 불안할 때 상승하는 시장 변동성은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가을 당시의 최저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찰리 보브린스코이 아리엘 인베스트먼트 부회장은 주식 투자자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이러한 수단들이 주가 회복을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투자심리가 부양되면 주가는 더 오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고수익 채권 시장이 조금 과대평가된 것 같아 걱정"이지만 "여전히 남은 한 해 동안 주가에 대해서는 꽤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고채와 회사채간 금리 차이를 뜻하는 신용스프레드 또한 낙관론을 지지하고 있다.

키이스 레너 섀트러스트 어드바이저리 서비스 수석 시장 전략가는 미국 국채 수익률 역전이 잠깐 나타났지만 정크본드 스프레드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좁은 수준에 머물렀다며 이는 투자자들이 과하게 우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짐 폴센 루돌프 그룹 수석 투자 전략가는 스프레드가 축소되고 있는 동안 특히 금융주를 주시하라고 밝혔다. 그는 스프레드와 S&P 금융 지수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정크본드가 신고점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주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폴센 전략가는 "신용 스프레드에 따르면 금융주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초점)-한국 경상수지 흑자 행진 7 년만에 멈출 가능성..상품수지가 관건

서울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지난 7 년간 매월 이어져 온 경상수지 흑자 행진이 멈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견조한 대외 펀더멘털의 든든한 기초가 돼 온 경상수지가 수출 부진과 맞물린 배당 지급 확대 영향으로 4 월에는 적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반도체, 휴대폰, 석유화학, 자동차, 기계 등의 탄탄한 수출경쟁력에 힘입어 경상수지는 흑자 기조를 이어 왔다. 하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넉 달 연속 감소한 가운데 연간 배당 지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4 월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이 불거졌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주식 투자자들에 대한 연간 배당 지급이 집중되는 매년 4 월 줄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상품수지 흑자가 배당수지 적자를 초과해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했고, 달러/원 환율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됐다.

한국은행 경상수지 통계 기준으로 지난해 4 월 투자소득 배당 지급은 77 억달러로 역대 최대였지만 상품수지가 96 억달러 흑자를 보여 경상수지는 14 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마지막으로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던 2012 년 4 월 상품수지는 3 억달러 적자였다.

결국 가장 중요한 변수는 상품수지다.

▲ 우려는 우려일 뿐?

추세상으로는 상품수지 흑자 폭 축소와 배당 지급 증가 영향에 따라 경상수지가 4 월에 적자로 전환하더라도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아직은 우세하다.

한국은행 금융통계부장은 4 일 브리핑에서 서비스수지가 개선 추세고 상품수지 역시 유가와 무역협상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 만큼 4 월 경상수지 적자를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 월 배당 지급은 매년 반복되는 계절적 요인으로 특정월만 너무 의미있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구조적으로 경상수지가 적자를 보이던 2011 년 상반기에도 원화와 외화조달비용이 안정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됐다. 물론, 2008 년 상반기 경상수지 적자 때는 외환시장 불안이 컸지만 현재의 전반적인 대외 건전성과 국내외 여건을 그때와 곧바로 연결짓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경상수지 적자 전환 가능성이 주목받는 이유는 포그라드는 상품수지 축소 흐름에 있다.

정미영 삼성선물 센터장은 "예전보다 4 월에 배당 지급이 몰리는 만큼 한 달 적자를 보인다고 해서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훼손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되는 점은 경계할 만하다"면서 결국 가장 중요한 대목은 무역수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가가 10 달러 오를 때 무역 흑자 100-150 억달러 감소를 추정하는데, 물론 그럴 가능성은 작지만 수출이 꺾이고 유가가 일시적으로 높아지면 무역수지 흑자 기조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고 말했다.

2 월 상품수지 흑자는 54.8 억달러로 2014 년 7 월 이후 가장 작았다. 국제유가는 최근 5 개월 만의 최고치로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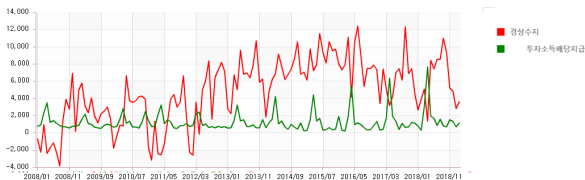
골드만삭스는 올해 한국 경상수지 규모를 GDP 의 3.4%인 560 억달러로 전망했다. 이는 한국은행 전망치인 690 억달러(GDP 의 4.2%)보다 훨씬 작다. 골드만삭스는 4 월 일시적 경상수지 적자를 전망하며 특히 상반기에 저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같은 전망 아래 12 개월 이후 달러/원 환율을 1170 원으로 제시하며 원화 약세 뷰를 유지했다.

한국의 경상수지 경로가 궤도를 이탈할지 아직 불투명한 가운데 결국 미-중 무역갈등이 어떻게 봉합될지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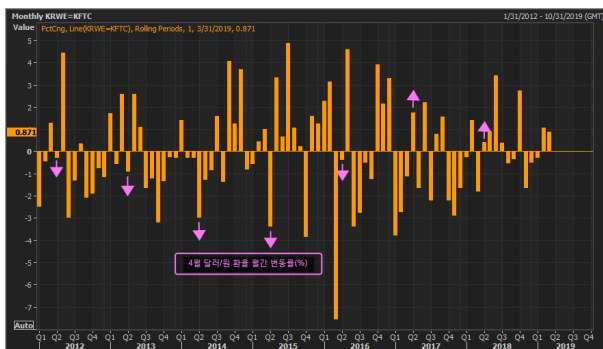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보고서에서 "무역수지 흑자 축소의 주된 원인은 미-중 무역갈등 장기화로, 이에 따라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동반 개선 가능성이 높다"면서 "다만 미-중 무역

협상 타결이 지연될수록 국내 경상수지 적자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내 경상수지 적자는 일시적일 수 있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와 함께 당분간 원화 약세 압력을 높일 수 있는 변수"라고 덧붙였다.



(단위: 백만달러, 출처: 한국은행,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초점)-한은, 새 지표금리 선정 공론화..CD 금리 대체 가능할까

서울 (로이터) 임승규 기자 - 한국은행이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를 대체할 새로운 지표금리 선정과 관리체계 정비의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한은이 이전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나섬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새 지표금리 선정 작업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한은 '새 지표금리 선정해야'..금융위 '지금 CD 금리에 집중'

한은은 4일 배포한 '최근 주요국의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현황 및 시사점'이라는 보도참고자료에서 "국내 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중요지표의 산출 중단 가능성 등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시 사용가능한 대

체지표로서 무위험 지표금리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 및 활용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동향, 각국의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시장참가자들이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위험 지표금리는 2012년 리보금리 조작사건 이후 FSB(금융안정위원회)의 권고로 개발되고 있다.

오는 2021년부터 리보금리의 산출이 중단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주요국 무위험 지표금리의 활용도가 파생상품 거래 등에서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은은 밝혔다.

한은의 이번 발표는 CD 금리를 대체할 새로운 지표금리 선정을 공론화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기존에 지표금리로 활용돼 온 CD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펴고 있다.

'유럽연합 벤치마크 규제(EU Benchmarks Regulation, BMR)'에 따라 비유럽국가들은 올해 말까지 자국의 지표금리에 대한 EU 감독당국의 인증을 받아야 했는데 국내 금융당국은 CD 금리를 지표금리로 해 EU 인증을 통과하는 데 우선순위를 뒀기 때문이다.

EU의 벤치마크 규제 시한이 2년 연기되긴 했지만 CD 금리를 지표금리로 인증받겠다는 금융당국의 계획에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다.

금융당국은 예대율 규제 완화를 통해 CD 발행량이 의미 있는 수준으로 늘어난 만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거래지표관리법'이 통과되면 CD 금리 산출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CD 금리의 산출과 관리 역시 기존에 역할을 담당했던 금융투자협회에 그대로 맡길 계획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아직은 지표금리 기준에 맞는 다른 대체금리가 없기 때문에 CD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만든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새로운 금리가 시장에서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거래지표관리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현재 산출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이 계속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지표금리를 만드는 문제는 장기적으로 볼 문제이고 우리는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후보 선정 만만치 않아..한은 적극적 역할 필요

새 지표금리를 선정하는 데 따른 현실적 장벽도 만만치 않다.

한은은 국내 무위험 지표금리 대상 후보로 무담보 익일물 금리인 콜금리와 RP 금리를 들었다.

미국이 국채담보 익일물 RP 금리(SOFR), 영국이 무담보 익일물 금리(SONIA), 유로존이 무담보 익일물 금리(ESTER), 일본이 무담보 익일물 콜금리(TONA)를 무위험 지표금리로 선정하는 등 콜금리 또는 레포금리를 지표금리로 선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라는 진단이다.

하지만 국내 콜금리와 레포금리 모두 지표금리 선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적지 않다.

콜금리의 경우 거래량이 문제다. 금융당국의 레포 거래 활성화 정책 여파로 일일 콜 거래량은 10 조원 대로 줄어들었다. 시장의 유동성은 조작 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콜금리를 지표금리로 사용하기는 쉽지 않다. 금융당국이 그동안 정책적으로 콜 거래를 제한했던 것을 감안하면 콜금리를 지표금리로 사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있다.

레포금리는 금리 안정성 측면에서 약점을 드러낸다. 지표금리는 외부 여건 변화에 반응해 과도하게 움직이지 않아야 안정적으로 산출될 수 있는데 레포금리는 분기말마다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며 예측 가능성을 떨어트리고 있다.

시중은행의 한 자금운용팀장은 "익일물 레포금리를 지표금리로 쓸 경우 변동성이 너무 크다"며 "분기말에 증권사의 자금이 꼬일 때마다 금리가 엄청나게 오를 수 있는 만큼 금리 안정성을 고려해 참여자를 제한하는 레포금리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선 국고채 담보 GCF(General Collateral Finance) 레포금리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GCF 레포는 사전에 한번 포괄적으로 동의하면 레포 매수자의 개별동의

없이 매도자가 담보를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는 거래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미국의 SOFR에 가장 가까운 게 예탁원의 국고채 담보 GCF 레포"라며 "그동안 레포 기일물 거래가 워낙 적어 GCF 레포 거래도 많지 않았지만 앞으로 기일물 거래가 활성화되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외에선 대부분 지표금리 개발위원회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며 "미국도 후보선정만 1~2년 걸렸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지표금리를 선정하는 과정에 한은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었다.

시중은행의 한 자금부장은 "결국 레포시장의 거래 상대방 리스크, 담보채권의 크레딧 리스크를 어떻게 제거하느냐가 문제"라며 "현재 은행의 지급준비금 적립 상황에 따라 금리 변동성이 너무 큰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표금리가 바뀌면 그만큼 픽싱이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 산출과 공표가 중요하다"며 "한은이 새로운 지표금리의 산출과 공표를 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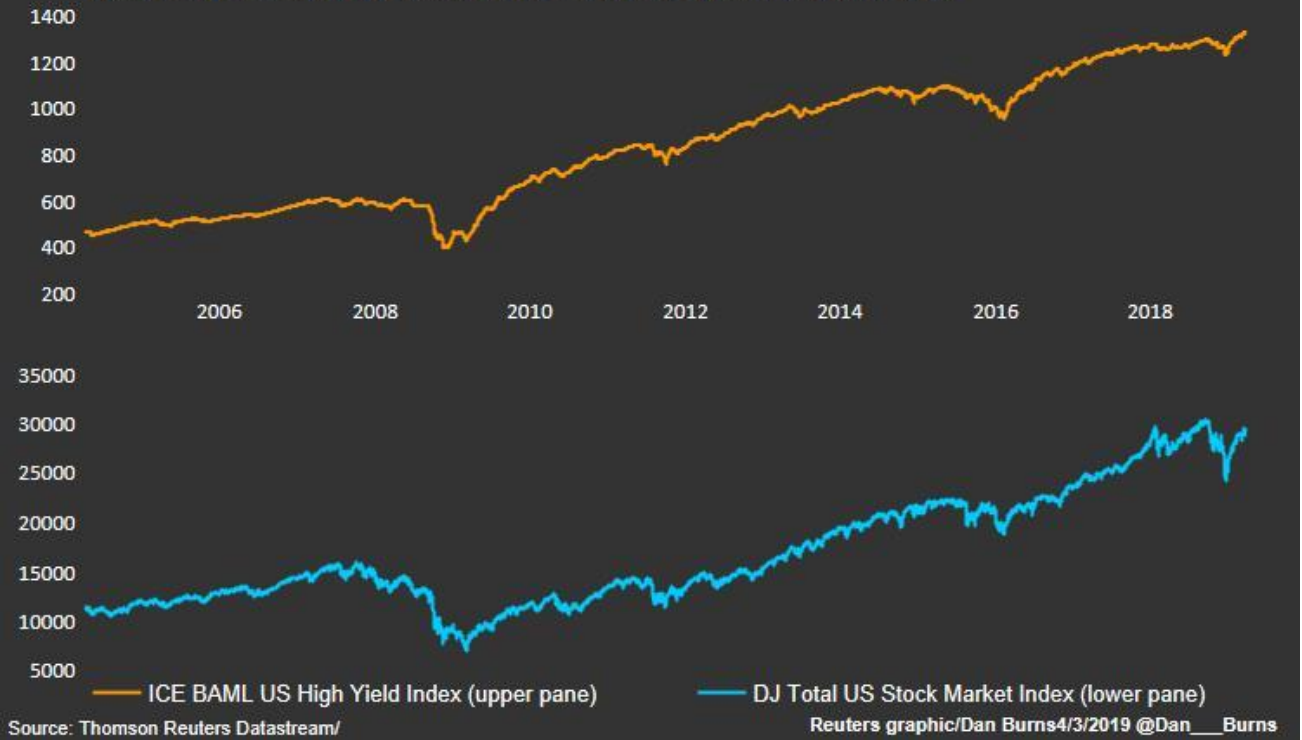
PHOTO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Junk bond recovery signals more gains for stoc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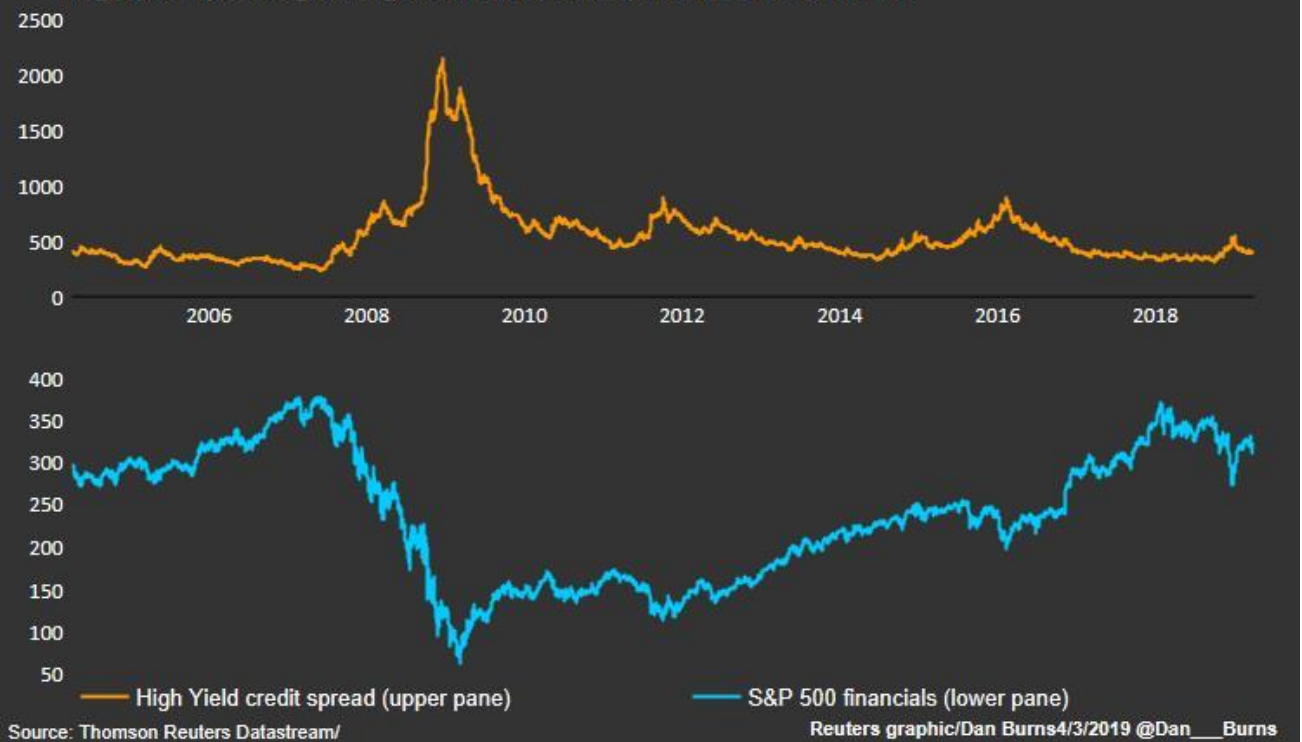
High-yield bonds rarely hit a record without equities following in their wak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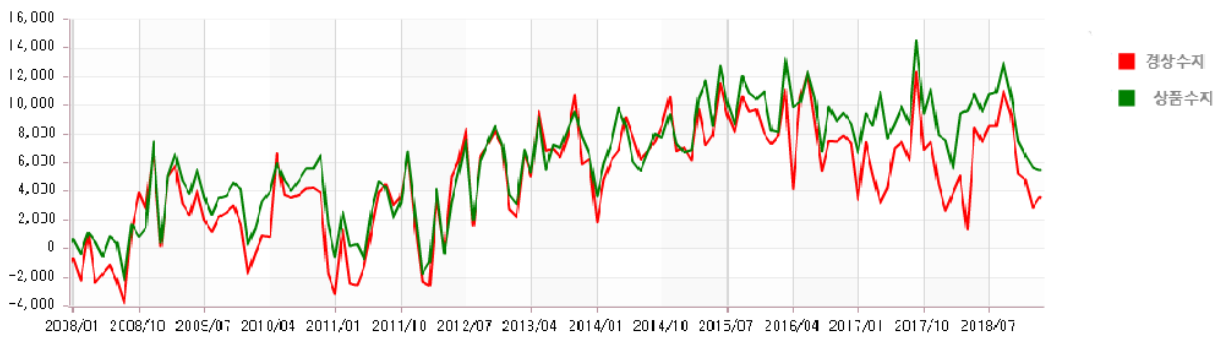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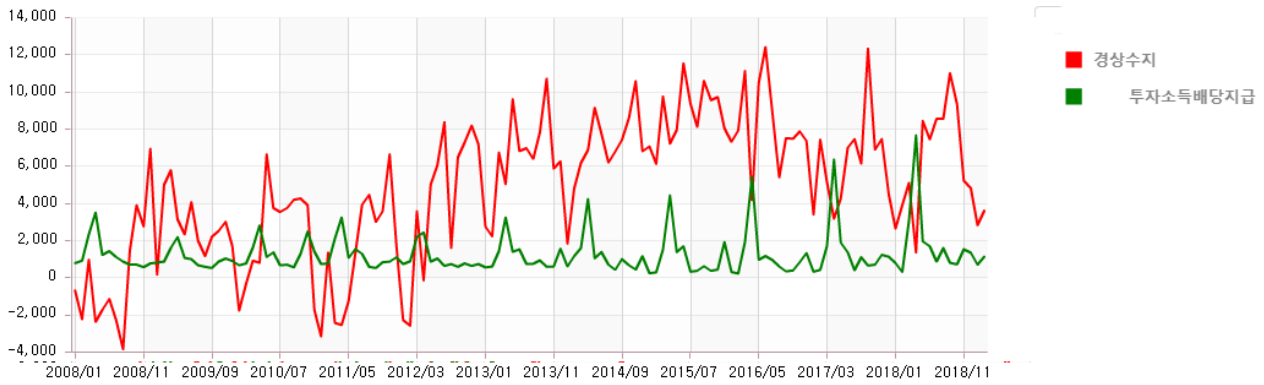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Junk bond credit spreads are narrowing ag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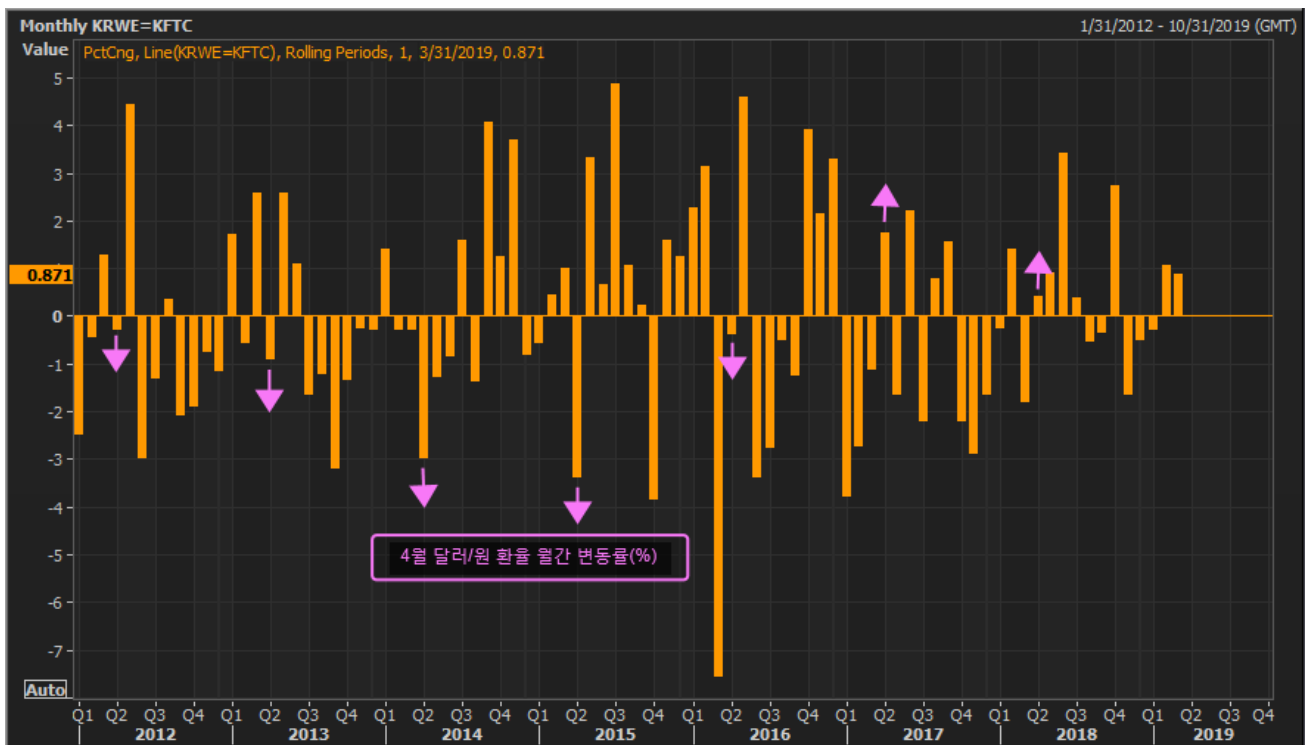
High-yield spread tightening could mean more upside for financial stocks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림을 클릭하면 보던 곳으로 돌아갑니다)